

# 눈길 끄는 독특한 주제의 실용서

설치미술 감상법·문화재 다루기 등 이색 소재 다뤄

문화생활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책이 실용서에 새 흐름을 만들고 있다. 클래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나 영화 입문서 등은 취미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미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나온 책은 미술·음악 각 장르의 입문서는 물론, 각종 고급문화를 즐기기 위한 전문적인 책들이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 특정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

대원사는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예술의 다양한 장르에 대한 '감상법'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펴내 독자들에게 이미 신뢰를 얻고 있다. 현재 《한국화 감상법》《서양화 감상법》《추상화 감상법》《중국화 감상법》《행위예술 감상법》《설치미술 감상법》《현대무용 감상법》《오페라 감상법》 등이 나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펴낸 《오페라...》나 《설치미술...》《행위예술...》은 새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실용서가 새 흐름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감상하는 법에서부터 자원봉사의 방법, 문화재를 다루는 법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주제를 다룬 실용서들이 새롭게 등장, 독자들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이한 소재를 다룬 문화 실용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로운 문화 조류를 성의껏 담으려 했다는 점에서나 특정 소수의 문화를 대중화하려 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시리즈를 기획한 대원사의 조은정 실

장은 "여건상 어릴 때부터 문화적 소양을 쌓기가 어려워서인지 일반인들은 문화현상을 접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문화현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한 지침서를 만들려 했다"고 기획배경을 밝힌다.

대원사의 감상법 시리즈는 기본 개념, 역사, 대표적인 작업이나 작품의 해설을 주 내용으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만을 모아 쉽게 설명했다.

서울미디어에서 내고 있는 길라잡이 시리즈도 이와 비슷하다. 《재미있는 클래식 길라잡이》(신동헌 지음), 《재미있는 국악 길라잡이》(이성재 지음)는 국악과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충실한 안내서인데, 《국악...》는 국악의 다양한 장르와 해설을 담은 테이프까지 함께 출간했다.

이 시리즈 가운데 특이한 것은 최근에 나온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이용교·이혜인 지음). 이 책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보람 있게 쓰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독특한 취미 안내한 책도

무엇보다도 《자원봉사...》는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는 '거창한' 개념을 바꾼다. 돈도 없고, 제도를 바꿀 만큼의 큰 권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이 동네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모아 강의하는 것도 훌륭한 자원봉사다.

이같은 대중적 입문서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관심에 맞추어 그 종류가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매니아층의 형성된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문화재 다루기》(이내옥 지음, 열화당). 열매전 박물관로 지정된 '별황자총통'이 조작된 유물이라는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일이 있다. 《문화재 다루기》를 펴낸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관 이내옥씨는 "우리 상상에 서라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문화재를 다루고 관리하는 인식과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토로했다.

이 책은 문화재 다루는 요령만을 담은 것이 아니다. 골동품이나 현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빈번해진 문화재 대외과정에서의 보관방법도 설명한다.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물 다루기의 기본수칙부터 석재·금속·직물·목재·서책·회화 등 재질별로 유물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세세히 밝혔다. 문화재를 운반하는 요령, 포장하는 법 등은 그림까지 곁들여 이해를 높였다.

출간한 지 꽤 됐지만 집문당에서 나온 《동양화 읽는 법》(조용진 지음)도 재미있는 책이다. 이 책은 동양화 안에서 나타나는

## 화제의 책

# 인물로 보는 한국 유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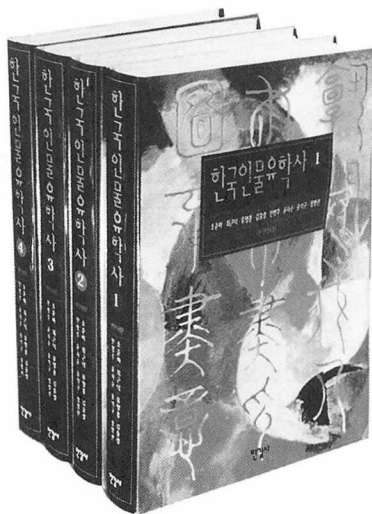
《한국인물유학사》 조준하 외 지음

일본 태자에게 유학을 가르쳤다는 '왕인(王仁)'은 누구이며 그의 학문과 사상은 어떤 것이었다. 어떤 역사서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러한 사항들을 《한국인물유학사》(전4권)에서 읽을 수 있다.

한국사상사의 핵심 줄기라 할 수 있는 유학사를 인물 중심으로 살핀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후대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문집이나 자료를 남긴 103인의 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

이들 중에는 특히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사상이 밝혀지지 않았던 인물 50여명이 포함되었는데 왕인·강수·설총·최자·최해·이곡·이승인·박상·백인걸·정지운·노수신·정시환·서용순·전우 등이 그들이다.

한 인물을 한 개의 독립된 장에서 다루면



서도 그 인물의 가계와 학문적 교류관계를 자세하게 밝힌다. 사상 자체를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한 인물의 삶을 추적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사상을 이해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속한 시대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할 수 있다. ❖

한길사/A5신/각 500면 내외/각 15000원

# 애정어린 시선의 '미술의 세계'

유홍준의 《정직한 관객》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를 읽고

백정숙 · 만화평론가

여러가지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동양화 감상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화는 화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문구로 미리 정하고 이 문구와 발음이 같은 사물을 택하여 그린다가거나 고전적 명구나 일화, 우의 등을 담고 있어 '미술해부학'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예음의 《바이올린》(최승식 지음)이나 대원사의 《오디오》는 취미로 매개된 물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바이올린》의 경우 울드와 모던의 가격, 전문감정가의 바이올린 선택 노하우, 가짜와 모조품을 구별하는 법, 악기 수리와 손질법을 소개해 바이올린 전문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뮤직비디오, 어떻게 읽을 것인가》(앤 카플란 지음, 한나래)는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을 통해 대중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한 뮤직비디오 감상법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 실구매자층의 요구 분화가 원인

다양한 장르의 취미생활을 다룬 책이 출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분석이 나와있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실구매자층의 요구가 분화되고 출판계가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데서 생긴 경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종류의 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실용성. 서울미디어의 윤정아씨는 "입문서의 경우는 문외한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장이나 화랑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필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이면서도 대중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한편 늘어나는 취미 실용서의 출간을 걱정스런 눈길로 보는 이도 적지않다. 이런 출판경향이 한때의 유행으로 흘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나 문화창조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들은 취미 실용서의 다양화가 문화를 활발하게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주 기자

얼마전 라디오 프로그램 중 애청자 엽서를 읽어주는 게 있었다. 내용인 즉 고등학생이 팝송을 들으니 선생님이 남의 나라 노래를 듣는다고 혼시를 하셨다고 한다. 이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은 그냥 들어서 좋으면 되겠지 우리것 남의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필자 또한 직업이 만화평론인지라 우리나라 만화계를 말한다던 현재 우리나라에 다친 일본만화의 영향력은 단지 재미있는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가 많이 있다. 이는 비단 어느 특정분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현상이 전통의 단절과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비롯된 소비문화라는 것은 충분히 사회문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미술평론가 유홍준씨의 두 권의 책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미술비평서이지만 우리나라 문화전반에서 일고 있는 현실과 전통의 문제와 박제화되고 권위주의적인 미술에 대해 애정어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려한 듯 담백하고 친밀한 저자의 필치는 읽는 이를 미술의 세계, 인식의 세계, 현실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는 것 만큼 보인다"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듯이 철저한 원칙을 지키면서 풍부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저자의 포용력이 글 요소소스에 드러난다. 저자의 미술비평의 관점은 약자의 입장, 대중의 입장에서 민족미

술을 축으로 한 민중미학의 관점이다. 민중에 대한 애정을 근거로 미술에 대한 애정과 미술가에 대한 애정을 뿜어낸다. 그러면서 모더니스트들이나 조잡하게 현학적인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냉혹한 비판을 가한다. 그렇게 저자는 미술이나 문화의 딱딱하고 견고함을 무너뜨린다.

두 책은 저자가 15년 동안 여러 군데에 기고해왔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정직한 관객》은 주로 시평에 가까운 단문들로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한 시대의 문화현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생각하는 뜻에서 집필했던 것들로, 우리나라의 제반 문화현상과 작가 소론(小論), 그리고 일반인들이 미술의 제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미술론들을 묶은 것이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창작자나 감상자의 허위의식을 벗겨내고 있다.

반면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는 미술사적 실천으로서의 미술비평으로, 그간 저자가 올곧게 부여잡고 있던 현실과 전통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하는 고뇌가 이 책에 삽입된 컬러도판에 까지 녹아 있다.

전통계승의 문제에 대해서 저자는 "예술 창작에서 전통의 문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래 전통의 단절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전통이란 과거에 존재하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확보하고 세워가야 하고, 또 가계끔 되어 있는 흐름인



백정숙씨.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전통, 그것은 이를 가치있고 존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있는 용어인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1부는 총론적으로 우리 미술의 위상과 한국현대미술사에서 전통계승의 성과, 그리고 민중미술의 전개과정이 실려 있고, 2,3부에는 전통의 저력을 보여준 7명의 작가론과 현실의 문제에 적극 도전한 10명의 작가론을 각각 수록했다. 제4부에서는 우리 미술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사례연구로 중국의 신흥목판화와 북한의 조선화 성립과정을 담고 있다. 《정직한 관객》보다는 다소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글이지만 현상비평, 실제비평을 경험한 작가의 성실함이 돋보인다.

저자가 이 두권의 책에서 제시한 미술의 가치론은 각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서 본다면 '미술'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장르를 삽입시켜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와 정신에 대한 뼈있는 이야기들을 철학과 미학, 그리고 예술론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미술서가 아니라 교양서로 분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빨리 화랑으로 달려가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싶다. ❖

《정직한 관객》  
학교재/A5신/286면/7800원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창작과비평사/A5신/320면/12,000원

